

어떤 부활

김무경
마리아

(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내가 김 00 씨에 대해 처음 들은 것은 지난해 초 가을 아침 간담회서였다.

진단명은 백혈병, 나이는 30세, 종교는 개신교 신자로 12개월 된 딸아이가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지난주에 부인과 이혼한 상태라고 한다.

배정을 받은 그날 나는 그 환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내내 “지난주 이혼”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10월 둘째주 월요일 환자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실문을 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호스피스 봉사를 한지 얼마되지 않아 솔직히 불안했다. 입 주위가 다 헐고, 눈은 썩하고, 팔 다리엔 온통 부스럼투성이었다. 환자를 보는 순간 “하느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고 기도가 되었다. 이렇게 첫 만남은 끝이 났다.

그 후 입,퇴원을 몇 번 반복하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무던히도 그통스러워 했고, 육신의 고통과 이별의 절망에서 오는 몸부림에 절규하며 색바랜 입새처럼 그렇게 그해 가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쓸쓸히 가을을 보내고 올 1월 17일, 병실에 들어서자 환자는 고열로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쇠 목소리로 인사를 한다. 목감기가 심하다며 며칠 상태가 좋았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이제 감기도 이기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문득 아이들 편도선염때 아이스크림을 먹이던 생각이 나 얼른 매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서 올라갔다.

“그동안 죽도 안넘어 갔는데 아이스크림은 술술 잘 넘어가네요” 하며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밥을 받아 먹듯이 맛있게 받아먹는 모습이 너무나 천진스러워 보였다. 먹는 눈빛이 아이처럼 순수하게 반짝이는 모습에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며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걸 가까스로 참았다. 늙으신 어머님께 서는 눈물이 글썽인채 바라보시고 나는 환자를 아이처럼 품에 안고 조심스레 한통을 더 먹이고 나니 환자는 좀 기운이 나 보였다. 그동안 얼굴에 있었던 부스럼은 다 들어가고 그 자욱이 하얀 비듬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환자에게 뭐 특별히 먹고 싶은게 있으면 말해봐요 하고 물었다. 환자는 너무나 뜻밖에도 “저 오이지요. 오이지가 먹고 싶어요” 한다. 한겨울에 오이지라 집으로 오며 환자가 오이지가 먹고 싶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한쪽으로는 걱정을 하였다. 나는 집 앞에 있는 백화점 지하 슈퍼에 들러 오이지를 찾으니 다행히도 오이지는 암전히 비닐에 싸여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순간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왔다. 간을 보니 좀

짜고 씹쓸하기에 물에 담그었다 꼭 짜서 갖은 양념과 참기름을 듬뿍 넣고 무치니 그런대로 먹을만 했다. 월요일. 난 설레는 마음으로 병실을 들어섰다. 생각보다 환자는 많이 좋아보였다. 일주일동안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았다고 아이처럼 좋아한다. 나는 준비해간 오이지를 내놓으며 점심식사 시간에 맛있게 먹으라고 하니 노모도 덩달아 기뻐하신다. 우리는 손을 잡고 기도했다.

“하느님! 당신 찬미 받고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작고 하찮은 일에도 아이처럼 기뻐하는 우리 00씨의 순수함과 지나간 모든날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도 또한 당신께 맡겨 드리오니 매순간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늙으신 어머님께도 건강주시고 아프고 힘든 마음 위로해 주시고, 지금은 서로가 남남이 되었지만 그동안 함께 했던 아내와 아이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난주 보다 많이 좋아보이는 환자를 뒤로 한 채 우리는 병실문을 나섰다.

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 환자를 만나는 설레임과 기다림으로 일주일을 보낸다.

기다리던 월요일이 되어 병실에 들어서니 환자는 잠에 취해 있었다. 주위 정돈을 하고 있는데 기척소리에 눈을 뜬 환자는 나를 보고는 빙긋이 웃는다.

3일동안 오이지만 먹고 생활했다며 오이지 덕분에 힘이 난다고 한다. 힘이 난다는 환자의 말에 나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쓸쓸하다. 오후가 되어 다시 올라가니 오전과는 달리 환자는 우울해 하였다. 어머님께 어찌보니 조금전에 딸 아이 전화를 받고 우울해 한다고 한다. 환자의 등을 쓰다듬으니 환자는 “딸이 보고 싶어요. 아빠 소리도 너무나 잘하고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보고 싶어 견딜수가

없어요. 이제 17개월인데...” 하며 눈에서 눈물이 주룩룩 흘러 내린다. 나는 그순간 어쩔하나 이 그리움을, 아빠의 찢어지는 이 가슴을 딸은 알까?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할까? 하며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움을 가슴에 묻어둔 채 매섭고 추운 1월은 이렇게 지났다.

하루는 병실에 들어서니 초췌한 모습으로 자는 듯 누워 있었다. 오랫동안 머리는 감지 못해 헝크러진 채 뭉쳐 있고, 얼굴도 하얗게 각질이 벗겨져 지저분하다. 나는 상태가 조금 괜찮으니 머리와 몸을 닦지 않겠냐고 물었다. 환자는 어린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마지막 목욕이 될지 모를 이 환자에게 정성을 다해 머리를 감기고, 뜨거운 물수건으로 온 몸을 닦아 준 후 환의를 갈아 입히고, 얼굴에 로션을 발라주고 머리를 빗겨주니 환자는 다른 인물이 되었다. 나의 등줄기에는 땀방울이 흘러 내리고, 같은 병실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신의 일인양 개운해 하며 아직은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기뻐할 하신다. 그동안 우울했던 병실의 분위기가 밝아졌다.

환자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치며 현실 싱글벙글한다. 그러더니 환자는 “자매님! 나 죽기 싫어요. 많은 분들한테 너무 사랑만 받고 이대로 떠날 수는 없어요. 이 젊은 나이에 나 정말 떠나기 싫어요. 한빛이(딸)도 볼 수 없잖아요” 순간 난 가슴이 무너지는 소릴 들었다. 언젠가 이런 시간들이 울 줄 예감을 했었지만 막상 부딪치고 보니 이렇게 말하는 환자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 줘야 할지 순간 움찔해진다. “하느님 당신 뜻을 어떻게 전해야 좋을까요”하고 화살기도를 바친 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환자를 치료해 주는 의사, 간호사 또 그동안 사랑을 많이 주었던 가족과 봉사자,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영원히 살지 못합

니다.

단지 하느님 나라에 가는 순서가 좀 바뀔 따름이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한번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자신만이 겪게 되는 큰 사건입니다. 이 큰 사건을 앞에 두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만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죽기 싫다고 발더둥치며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의 보답으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흔적의 자취가 사랑하는 아이일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영화필름처럼 사진으로 남아있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00씨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의 소중한 시간들을 아름답게 마음에 새기고 사랑의 흔적을 많이 사람들에게 많이 남겼으면 합니다”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 환자는 나의 이야기를 눈을 감고 듣더니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이야기를 하고는 창 밖을 바라본다.

일주일 후 환자는 고열로 눈도 못 뜨고 고통스러워하며 통증을 호소한다.

나는 조심스럽게 얼굴에 묻어있는 땀방울을 닦아주고 호소하는 통증 부위를 마사지해 주니 통증이 조금은 감소되었는지 시원하다고 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다. 그때 마침 건강할 때 특전사에 함께 근무했던 건강한 중위 한 분이 문명을 왔다. 특전사 여군들이 보내온 헌혈증과 간단한 메모지를 환자에게 건넨다. 메모지에는 “00씨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속히 회복하세요.

저희들 모두 00씨를 사랑합니다”라고 예쁜 글씨로 적여 있었다. 환자는 목이 메이는지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

나는 순간 눈물이 고여 있는 환자의 얼굴을 보며

“00씨 참 행복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여군들이 단체로 사랑을 하다니 너무나 부럽다”하니 빙긋이 미소를 지어 보인다. 오랜만에 만난 군 동기와의 만남에 방해가 될까 하여 자리를 뜨려 하니 함께 계셔 달라고 하며 제가 지금까지 삶을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호스피스 봉사자들 덕분이고, 이분들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라고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봉사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쉬지않고 이야기를 한다.

3월 20일. 지난주보다 환자의 상태는 더 안좋다. 얼굴색이 파란빛이 돌고 호흡도 불규칙하다. 내심나의 가슴이 뛰고 순간 불안해진다. 조심스럽게 환자의 손을 잡으니 실눈을 뜨며 “오셨어요”한다. “많이 힘들죠” 하니 “아뇨.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하고 겨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노모와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더니 “점심식사 후 다녀가세요”하고는 다시 눈을 감는다. 나는 사무실로 내려와 점심을 먹는등 마는등 하고 병실로 올라갔다. 그때까지 환자는 의식이 혼미한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오전보다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안타까움은 어찌할 수가 없다. 침대옆에 앉아 편안히 가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 후 병실을 나오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따라 나오신다. 나는 두팔로 어머니를 안아드리며 “편안히 보내세요. 그렇게 해야 막내 아들도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하며 께안아드렸다.

그로부터 사흘 뒤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너무도 편안하게 잠들었다. 사망소식을 듣고 영안실에 도착한 나는 그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고 말았다. 어머니는 잠든 아들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고 또 보고 하였고,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며 그동안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어 감사하다는 말씀씀을 하시며 연신 눈물을 흘리신다. 나는 봉사자들과 함께 꽃을 봉헌하고 연도를 바친 후 유가족들과의 인사를 나누고 발길을 돌렸다.

돌아오며 “이제 그동안 고단했고 힘들었던 육신은 편안히 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하느님 그 영혼을 애련히 여기시어 영

원한 천상나라에게 천상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많은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그를 떠올리며 그는 떠났지만 그와 나누었던 많은 시간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영원히 나의 가슴에 남아 영원히 숨쉬게 될 것이다.

죽음을 잊고 살다가

이해인 수녀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죽음을 잊고 살다가

누군가의 임종 소식에 접하면
그를 깊이 알지 못해도
가슴 속엔 오래도록
찬 바람이 분다

“더 깊이 고독하여라”
“더 깊이 아파하여라”
“더 깊이 혼자가 되어라”

두렵고도
고마운 말 내게 전하며
서서히 떠날 준비를 하라 이르며

가을도 아닌데
가슴 속엔 오래도록
찬 바람이 분다